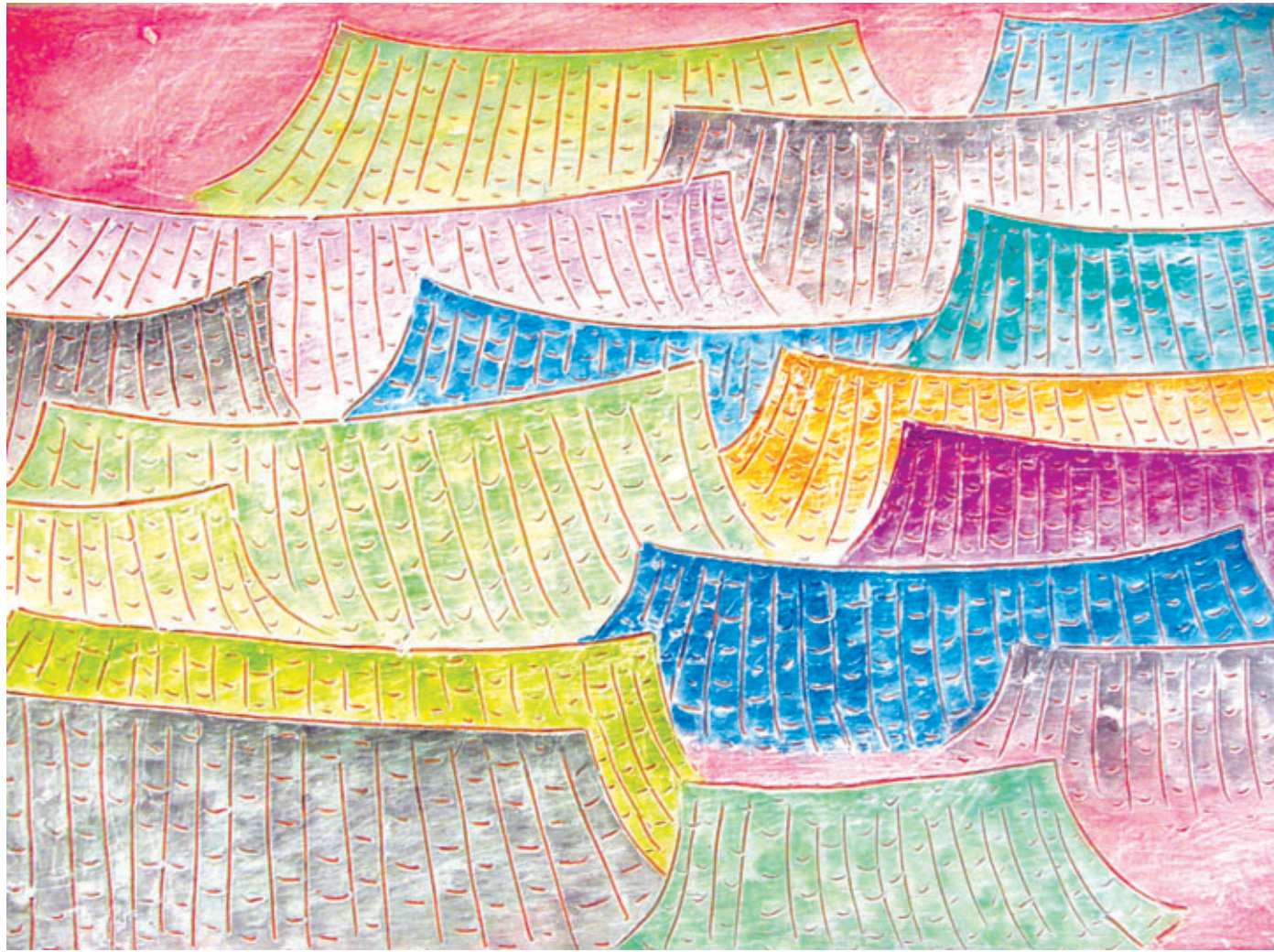


갤러리 색즉시공



성도절 아침에

똑 똑르르... 당신이 걷고 또 걸으신
 절집 지붕 사이로 그 길을 따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깨달음을 향해
 정진의 소리 지금
 끊이질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딱 딱딱... 당신이 당부하신 말씀
 어간문사이로 "어서 어서 정진 하거라!"
 하루종일
 죽비의 소리 예!
 끊이질 않습니다. 합장 합니다.

지심귀명례..
 지심귀명례..
 매일 마다
 참회의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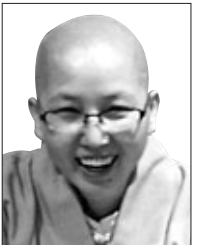


그림 · 글 희상 스님

어머님 49재에 올린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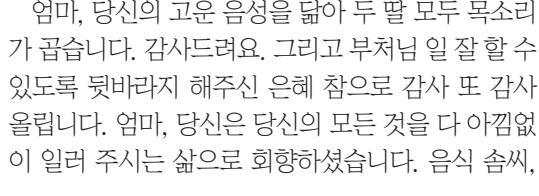
“10여년 병상 생활 ... ‘와선’ 이었고 ‘묵언정진’ 이셨습니다”

참회편지-참회하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삶은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자식 사랑은 더 애뜻하셨지요. 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듯 받아온 우리 자식들.
 말때꾸도 잘하고, 골도 잘 부리고, 잘 따지고, 그럴 때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얼마나 섭섭하시고 속상하셨을까. 죄송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져누워계실 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정희가 말 안 듣고 신경질 부리면 많이 속상하셨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실 거죠?”
 이 말씀을 드릴 때 마다 엄마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잡거나 제 얼굴을 만지셨지요. 늦게라도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비는 딸이 기특하셨나봅니다.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이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여러 번 빌고 또 빌었지만 두고두고 그 불효가 가슴 아픕니다. 제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정희 사랑하시죠?” 하면 누워서서 끄덕 끄덕 하시던 우리 어머니. 말이 필요 없는 그 말을 저는 아주 자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요.
 어머니 친정에 종종 가족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리 건강을 챙겨 드리지 못하고, 예방 못했던 것이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제 일에만 몰두한 제가 밋고 마음이 아픕니다.
 몸져누우신 후애 애썼지만 고쳐 드리지 못했

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지만, 그래도 좀 더 고명한 전문 의사를 만났거나 양한방 협진보다 양방을 먼저 선택 했으면 초기에 호전 되셨을 지도 모른다는 후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당신 딸들을 효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말 듣기가 민망합니다. 병고에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잘 모시지 못한 딸들을 어찌 효녀라 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도 당신은 간병하는 딸들에게 자주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뼉만 짚아 드려도 “고마워”라고 하였고, 동생이 머리를 감겨 드리거나 목욕시켜 드리면 역시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죠. “엄마, 엄마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 주신 은혜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제 어찌 고맙고 미안한 일이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요. 어머니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어머니, 만약 인연 있어 다시 뵈게 되면 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우리 가슴에 살아 계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생법인 하옵소서.

부처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와 불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49재날 어머니께 꼭 바치세요.”
 엄마, 당신의 고운 음성을 닮아 두 딸 모두 목소리가 곱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부처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엄마,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일러 주시는 삶으로 회향하셨습니다. 음식 솜씨,



영가를 극락 정토로 인도하는 정엄물이 걸린 북한산 삼천사 대웅전.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맛있는 음식을 동네 사람들과 자주 나누셨는데, 동생이 꼭 닮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우체부 아저씨에게 꼭 선물을 주시고, 정화조 청소부 아저씨들에게도 막걸리 값을 얹어주시는 그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병상에 계신 것은 누워서 하신 참선 ‘와선’ 이었고, 뒷날 말씀이 어눌해지셔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은 ‘묵언정진’ 이셨습니다. “엄마 무슨 생

각해?” 제가 여쭈어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무념무상의 경지를 병상에서 닦으셨습니다. 어느 생에서 부터 내려온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고 한편으론 큰 경지에 드는 수행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너희들은 건강을 미리 미리 챙기라’ 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살된 당신의 외증손자 현진이는 기어다닐 때 부터 노할머니 침대에 매달렸고, 그때마다 엄마는 웃

“미리 건강을 못 챙겨드린 자식들
 효녀 소리 들을때 마다 민망했어요”

으셨죠. 곁을마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아끼는 장난감을 노할머니 침상에 올려놓더니, 어머니께서 몸 바꾸시는 다비장에서도 유리창 앞에 세워놓은 영정사진 옆에 장난감 상자를 슬며시 올려놓았답니다. 그 현진이가 오늘 “노할머니 하고 아주 이별하는 날”이라는 제 엄마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 개학식에 안가고 할머니께 절 한다고 여기 왔습니다. 현진이 절 받으시고 생시처럼 웃으세요.
 어머니, 반혼재와 초재부터 오늘 49재까지 삼천사 성운 큰스님께서 특별히 마음 쓰셨습니다. 동출 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사중의 대중들께서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아미타부처님 계신 곳 서방정토 구름 연화좌에 오르셔서 왕생극락 하시길 스님들과

친지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축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연화좌에 오르신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오나 어머니, 만약 그곳이 심심하시거나 사바의 중생을 거두고 싶으시면 유복하게 다시 오셔서 대학자도 되시고, 대 보살님도 되십시오.
 당신의 권속들은 어머니께서 보여주고 일러주신 가르침대로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화목하게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무생법인 왕생극락 하옵소서.
 불기 2558년 1월 2일 (음력 계사년 설날 초이름)
 금강경 사경
 공양 발원재자
 큰딸 최정희 합장 올립니다.

삼천사에서는 칠칠재를 지내는 동안 유족이 금강경을 사경하고 영가에게 참회와 감사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49재를 모시는 날 사경과 편지는 영정 옆 상단에 올리고 재가 끝날 즈음 유족이 편지를 낭송했습니다. 영가와 유족이 마음의 대화를 하는 동안 동참 친지들은 숙연했고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경과 편지는 의식대로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날 참석했던 분들 중 편지를 다시 들고 싶다는 청이 있어 초안으로 쓴 편지를 다시 정리하여 지면에 게재하면서 삼천사의 특별한 재의식을 소개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립니다. 49재를 마친 날 밤, 5살 현진이가 말했습니다. “노할머니는 별이 돼서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별이 안 떴지” 식구들은 또 마음이 ‘짱’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할머니와 현진이는 어느 생에서 어떤 인연이었을까.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3, 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 (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서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 중지를 통달한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았다.

031-534-3373

양지 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국내산 (청도 불광사 사찰 내 재배)

‘적하수도 된장’ ‘적하수도 고추장’ 판매

■ 적하수도, 적하수도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도 된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도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도 된장, 하수도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도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도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모종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모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도 남서